



# 박근혜는 거대 야당 견제론으로 보수 결집 성공

‘선거의 여왕’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8년 전보다 더욱 드라마틱한 승리를 얻어냈다. 몇 달 전만 해도 그로기 상태였던 새누리당이 11일 총선에서 역전타를 날린 것은 무엇보다 그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일지된 평가다. 이에 따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‘박근혜 대세론’이 더욱 힘을 받을 형세다.

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,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등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만 해도 새누리당 내에선 “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보다 더 안 좋다” “100석도 건지기 쉽지 않다”는 비판론이 팽배했었다.

2004년 총선에 이어 다시 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박 위원장은 이번에도 정공법을 선택했다. 야당으로부터 ‘위장전술’이란 공격이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구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, 정강·정책 개정을 주도하며 총선을 위한 기초 체력부터 쌓았다.

‘선거의 여왕’ 드라마 같은 승리  
대선 길목 대세론 더 힘 받을 듯

부산 5차례나 내려가 지원 유세  
‘낙동강 벨트’ 문재인 도전 막아

서울에선 민주당에 패배

약점 노출한 뼈아픈 대목

선거운동 기간엔 전국을 누비며 ‘거대야당 견제론’ 등 핵심 메시지를 직접 전파했다. 새누리당의 유일한 선거전략이 ‘박근혜 마케팅’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. 그는 야권의 ‘정권 심판론’엔 “말 바꾸는 세력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”는 ‘야당 심판론’으로 맞섰다.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선 “나도 피해자”라고 피해갔고,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엔 “자라나는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느냐”며 공격의 전면에 섰다. 각종 이슈에 정면 대응하는 승부사 본능을 유감 없이 발휘한 것이다.

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“집권당의 오너가 박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야당의 최대 무기였던 ‘MB 심판론’의 위력이 감소한 게 결정적 요인”이라며 “박 위원장이 내세운 ‘미래 권력론’이 야권의 ‘과거 심판’을 누른 결과”라고 평가했다. 야권은 ‘이명박근혜 정권’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‘이명박=박근혜’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. 하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과거부터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갈등 관계였다는 인식이 두터웠다. 이 때문에 ‘이명박근혜’ 슬로건이

잘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. 새누리당 1당 등극의 기본 토대가 된 영남권 싸늘이 역시 박 위원장을 빼놓곤 설명하기 어렵다.

민주당은 부산에 문재인(사상), 문성근(북-강서을) 후보를 투입해 낙동강 벨트에서 대대적인 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상이었지만 박 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산에 5번이나 내려가면서 철벽 방어진을 구축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. 박 위원장의 한 측근은 “일부에선 사상에서 판세가 이미 기울었으니 사상에 자주 가봐야 박 위원장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, 박 위원장은 그럴수록 더 사상의 손수조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더라”고 말했다. 정치권에선 박 위원장이 부산에서 대선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의 바람을 잠재운 것은 12월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.

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 여겨 볼 대목은 새누리당의 충청권 강세 현상이다. 4년 전 선거에서 새누리당(당시 한나라당)은 충청권 선거구 24곳 가운데 고작 1석을 얻는 데 그쳤다. 하지만 이번엔 25곳(세종시 포함)에서 과반에 근접한 의석을 가져오는 전과를 올렸다. 이와 관련, 박 위원장의 한 측근은 “박 위원장이 과거 행정수도 논란 때부터 강경보수 그룹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충청권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은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용환 선대위 고문이 충청권 대응의 숨은 공로자란 평가도 있다. 김 고문은 지난해부터 박 위원장을 대신해 충청권에 수시로 내려가면서 인재 영입 등 선거 준비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. 김 고문 측은 “충청권 출신이 많은 인천에서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선전한 것도 같은 충청권 선거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”고 분석했다.

강원 지역도 당초 민주당 우세가 예상된 지역이지만 박 위원장 등장 이후 바람이 바뀌었다. 이 지역의 전통적 보수 민심이 급속히 옮겨오면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낳았다는 관측이다. 그러나 박 위원장의 향후 대권 가도가 장밋빛 일색이라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. 이번 선거는 박 위원장의 강점 못지않게 약점도 많이 노출시켰다. 우선 박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시장 보선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 공약에서 한계를 드러냈다. 4년 전 총선 때 압승을 거뒀던 서울에서 이번에 참패를 당한 것은 박 위원장에겐 뼈아픈 대목이다. 박 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20~30대, 수도권,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. 이는 당내 비(非) 박근혜 진영이 ‘박근혜 한계론’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.

김정하·백일현 기자 wormhole@joongang.co.kr



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(가운데) 등이 11일 당사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. 왼쪽부터 이양희 비대위원, 박 위원장, 이준석 비대위원, 김형수 기자

## 2004년 탄핵정국 때 천막당사서 121석 이번에도 ‘100석도 다행’ 전망 깨고 1당에

### 고사 직전 당 2번째 구원

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고사 직전의 당을 구해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.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때도 “우세 지역구 6(한나라당) 대 144(열린우리당)” 같은 절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할 때 구원 투수 역할을 했다.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 “기시감(既視感)이 든다”는 말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.

8년 전엔 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새도 없었다. 그해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론은 반(反)한나라당으로 돌아섰다. 한나라당은 총선(4월 15일)을 20여 일 앞둔 3월 23일 탄핵안 가결의 주역인 최병렬 대표 대신 박근혜 대표를 새 얼굴로 내세웠다. 당시 박 위원장은 당사를 천막으로 옮기고, 유권자들에게 108배를 하면서 “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” 눈물로 호소했다. 그렇게 해서 121석을 얻어냈다.

이번엔 4개월여의 시간이 있어서인지 ‘박근혜식 선거’는 더 진화하고 정교해졌다. 당 비상

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강·정책 등 총선의 밑그림을 그렸다. 그리고 “말 바꾸는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면 국회가 이념의 전성터, 정치 싸움터가 된다” 같은 핵심 논리를 직접 만들었다. 또 철저하게 원톱으로 전국을 누볐다. 여러 인사와 함께 ‘세 과시형 유세’를 하던 2004년보다 자신감이 쌓였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.

게다가 이번 총선은 8개월 뒤 치러지는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어 박 위원장 개인으로서도 힘들고 중요한 관문이었다. 정수장학회 등에 대한 야권의 공격은 ‘대선 후보자 검증’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서웠고,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합군을 사실상 혼자 상대해야 했다. ‘낙동강 벨트’라는 한정된 지역을 공략하는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, 투표 독려로 간접적인 야권 지원에 나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같은 대권주자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. 그럼에도 박 위원장은 부산을 다섯 번이나 찾은 등 승부를 피하지 않았고 결실을 맺었다. 백일현 기자 keysme@joongang.co.kr

CAU 미래를 여는 힘 중앙대학교

세계적 인프라가 큰 인재를 키우고 있다

중양대 대학원의 변화와 지원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규모와 인프라의 성장속에서 더 큰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. 인재를 위한 변화, 중앙대학교

QS 아시아대학평가 100대 대학

대학 최초 강의전담교수제 본격 도입

최첨단 R&D(연구개발)센터

Global Ph.D. Fellowship 지원자 전용지원

장학금 확대와 해외대학 학점교류

중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학년도 하반기 신입생 모집

▶성적우수신입생 수험료 4학기 전액면제 장학금 확대 ▶Global Ph.D. Fellowship 지원자 전용지원 ▶해외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복수학위제 운영

DO! CHALLENGE	전형구분	인터넷 원서접수	전형일
	일반 및 외국인	2012.4.16(월)~20(금)	2012.5.19(토)

▶ CAU 중앙대학교 대학원 (http://caugs.cau.ac.kr)